

위기 속 中企에 정부 ‘동아줄’... 사업전환 조건·기간단축

관련 매출액 없이도 사업전환 한 달 이상 걸리던 승인기간 절반 'Pre-회생컨설팅' 제도 신설 채권자와 채무자 사전조정 진행

관련 매출액이 없어도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 달 이상 걸리던 사업전환계획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기간이 보름 정도로 단축된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나서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돕는다.

'Pre-회생컨설팅' 제도를 새로 만들어 법적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전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

〈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Track 1	Track 2	Track 3
상시적 사업전환 촉진	성장 잠재성 높은기업의 경영악화 방지 (공공/민간금융)	회생 개시 전 자율조정 지원
제도 개선(요건완화)		회생기업에 신규자금과 이행 보증을 같이 지원
지원 강화(지원사업 우대)	위기 지역 및 소재부품장비업체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	경쟁력 상실기업 사업정리 유도
정보 제공(온·오프라인)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구조 개선책은 중기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회생법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SGI서울보증 등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두루 참여해 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 회생, 성장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본업 외에 영위하는 추가 업종의 매출이 30% 이상 돼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관련 요건을 없앴다.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실제로 발전기 제조를 주업으로 하면서 배전반 설비와 기계장비 도매·일반 공사를 하는 한 기업은 배터리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기존 사업 중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없어 신청이 거절됐다. 이번 조치로 이 기업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업전환특별법에 근거하는 '중소기

업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미래 유망업종 등으로 업종 전환이나 추가 계획을 제출하면 중기부 장관이 승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사업전환 자금, 기술개발,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의 제품생산, 시장개척을 돕기 위해 1조 3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우대해 지원한다.

중진공, 기보, 신보가 나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 추가 경영악화를 막는다.

재무상황, 경영현황 등 실태조사 → 프로그램 지원시 정상화가 예상되는 기업 선정 → 경영·기술 컨설팅, 금융 지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의 절차를 통

해서다.

이달 중 12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위기지역에 있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중기부와 금감원이 협업해 민간금융기관이 추천하는 구조조정 기업에 자금 및 컨설팅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법원의 자율구조조정 지원과 연계한 'Pre-회생컨설팅' 신설 외에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 중 경쟁력있는 기업을 중진공·캠코가 총 400억원의 공동자금을 지원하는 '재도약(Turn-around) 패키지'도 추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우리여행 GOGO 페스티벌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우리여행 GOGO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이 이벤트 게임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레미콘산업, ICT기술 접목해 스마트관리

아주큐엠에스 '모바일 골재입고'

아주그룹 계열인 IT전문기업 아주큐엠에스가 레미콘 산업 곳곳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며 업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아주큐엠에스는 머신러닝, 핫박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등의 기술을 활용해 레미콘 모래, 자갈 등과 같은 원자

재 납품 차량의 입출고 관리를 모바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바일 골재입고 서비스'를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개발, 레미콘 사에 납품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골재 입출고 적재량을 모바일앱과 연동된 사업장 출입구의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고, 관리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입출고 현황을 알려준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하청업체 불공정 행위 뿌리 뽑는다”

하도급법 위반한 4개기업 고발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적발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고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LG전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LG전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가운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앞서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이를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28억여원을 깎은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제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자동차 내장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인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는 등 40억여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릭스는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행위로 약 2억원의 피해를 입혀 제발 방지 명령을 받았다.

집진설비제, 집진장치 등을 제조하는 에어릭스는 최근 스마트팩토리 관련 솔루션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시티건설은 137개 업체에 어음 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17억여원의 피해를 입혀 제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1억 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승호 기자

LG전자-엔지스텍널러지

유럽 전기차 시장에 내비게이션 솔루션 공급

사용자 중심 지능형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솔루션 기업 엔지스텍널러지는 지난 17일 LG전자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전기차에 임베디드 내비게이션 솔루션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엔지스텍널러지의 전기차용 임베디드 내비게이션 솔루션은 일반 내비게이션 솔루션과 달리 경로 안내 시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경로 정보·속도·공조기 정보 등 차량의 상태정보를 활용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내비게이션이다.

엔지스텍널러지는 LG전자와의 전략

적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로의 공급을 확대한다.

엔지스텍널러지는 이번 계약이 라이선스 계약이므로, 솔루션 개발에 대한 개발비 외에도 해당 솔루션이 적용된 차량이 양산되는 시점부터 1대 당 일정 금액의 로열티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엔지스텍널러지는 전기차용 임베디드 내비게이션 솔루션으로 유럽지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 엔지스텍널러지의 솔루션은 신형 프리미엄 전기차의 솔루션을 신형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 공급되며, 기존 전기차와는 달리 차세대 프리미엄 전기차에 맞게 커넥티비티 솔루션을 한층 강화했다.

/배한님 기자

LG CNS-YBM NET

AI 영어회화 서비스 제공

LG CNS는 18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내 어학 전문기업 YBM NET과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 교육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LG CNS의 인공지능(AI) 기술력과 YBM NET의 외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역량을 결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AI 외국어 학습이라는 신개념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한다.

양사는 LG CNS가 지난 6월 개발 완료한 AI 기반 영어 학습 플랫폼 'AI튜터'를 활용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작하고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오늘의 날씨

9월 19일 (목)
음력 : 8월 21일

수도권 날씨
25 ~ 1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17 | 해질 / 18:35

연천 9/23, 동두천 10/24, 가평 12/23, 파주 9/24, 서울 14/25, 양평 12/25, 인천 14/24, 수원 14/24, 용인 14/24, 평택 12/25, 백령도 16/2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